

왕호응(王虎應) 일일 육효(2026년6월23일 웨이보 공개)

아버지가 언제 돌아가실까? (왕호응 씀)

이것은 제자가 제공한 사례이다. 어떤 남자가 아버지가 언제 돌아가실지 접쳤다.

계묘년(癸卯年) 임술월(壬戌月) 임술일(壬戌日) 신해시(辛亥時) (순공(旬空): 자축(子丑))에,

수지비(水地比)가 감위수(坎爲水)로 변하는 괘(卦)를 얻었다.

癸卯年 壬戌月 壬戌日 辛亥時

八卦

水地比(坤土宮) 之 坎爲水(坎水宮)

世 財 戊子 <small>空</small> <small>帳馬災</small>		白 財 戊子 <small>空</small> <small>帳馬災</small>		應 伏 孫 癸酉 <small>鬼害</small>
兄 戊戌 <small>蓋</small>		蛇 兄 戊戌 <small>蓋</small>		伏 財 癸亥 <small>帳喜花劫</small>
孫 戊申 <small>馬</small>		勾 孫 戊申 <small>馬</small>		伏 兄 癸丑 <small>空</small> <small>天</small>
應 父 戊午 <small>將</small>		朱 官 乙卯 <small>閏乙花</small>		世 伏 官 乙卯 <small>閏乙花</small>
兄 戊辰 <small>馬月</small>		青 父 乙巳 <small>乙亡</small>		伏 父 乙巳 <small>乙亡</small>
官 戊寅 <small>閏地</small>		玄 兄 乙未 <small>花鞍</small>		伏 兄 乙未 <small>花鞍</small>

六沖卦

歸魂卦

卦身: 孫申

空亡: 子丑

世身: 四爻

뒤에 해월(亥月) 임신일(壬申日) 오시(午時)에 돌아가셨다.

이것은 부모(父母)를 용신(用神)으로 삼는다. 부모 사화(巳火)가 일월(日月)에 입묘(入墓)하고, 화(化)하여 월파(月破)와 일파(日破)로 화(化)하였으니, 마땅히 출월(出月)에 응하므로 해월에 응(應)한 것인데, 독발(獨發)이 합(合)을 만났으므로 임신일에 응한 것이다. 원신(原神)이 오(午)에서 사(死)하고, 또 독발과 변효(變爻)가 오시에 이르러 연여(連茹)가 되었으므로 이에 응한 것이다.

‘증산복역’ 역자 ‘이두 김선호’ 필독 권장 자료
왕호응(王虎應) 일일 육효(2026년6월23일 웨이보 공개)

父亲哪天死？（王虎应写）

这是徒弟提供的一个案例。某男占父亲哪天死？于癸卯年壬戌月壬戌日辛亥时（旬空：子丑），得水地比之坎为水。

白虎 妻财子水"应
 螣蛇 兄弟戌土'
 勾陈 子孙申金"
 朱雀 官鬼卯木"世
 青龙 父母巳火× 兄弟辰土
 玄武 兄弟未土"

后于亥月壬申日午时死。

此以父母为用神。父母巳火入墓在日月，化月破日破，应出月，故应亥月，独发逢合，故应壬申日。元神死在午，又独发与变爻到午时连茹，故应之。



출 처: <https://weibo.com/u/6819693315>
 번 역: Gemini / 융(인스타: sangjun2495) (융선생 휴대폰: 010-5318-6999)
 자 료: 고미승, 김정은, 김종윤, 안은선 등 솔루션: 오종현

왕호응(王虎應) 기인 고사(2026년6월23일 웨이보 공개)

소강절(邵康節) 전기(傳奇)

제13장 황극(皇極)을 추연(推演)하여 천인(天人)을 탐구하고, 세운(世運)을 정하여 만고(萬古)의 길을 인도하다

세월이 깊어짐에 따라 학업과 수양이 마침내 무르익었다. 소옹(邵雍)은 반평생에 걸친 탐구를 거쳤으니, 소년 시절에는 여러 서적을 널리 섭렵하고, 청년 시절에는 사방을 두루 유람했으며, 중년에는 이름난 스승들을 찾아 도를 전해 듣고, 저자거리에서 인심을 관찰하는 한편, 명망 높은 사대부들과 깊이 교류하며 제자들을 가르치고 학문을 전했다. 이로써 선천역학(先天易學)의 체계와 하락(河洛)의 본원(本源), 그리고 역대 흥망성쇠의 의리(義理)를 하나로 온전히 융합해 내었다.

중년의 그는 마음이 맑아 막힘이 없고 학문이 원숙하여 걸림이 없었으니, 사물의 이치를 단편적으로 탐구하거나 일시적인 깨달음에 머무는 한계를 이미 초월해 있었다. 그의 시야는 사방 한 자에 불과한 몸과 마음, 그리고 눈앞의 산천과 저자거리로부터 벗어나, 먼 고대 이래 영원한 시공간 속에서 운행하는 천지의 조화와 인류의 역사로 확대되었다. 이때의 그는 더 이상 책 한 권, 이치 하나, 일 한 가지, 사물 하나에 구속되지 않았으며, 이미 하늘과 인간의 이치를 관통하고 고금을 굽어 보는 거장의 기상을 구비하고 있었다.

당대의 학술을 보건대, 유학자들은 오직 인간 세상의 도덕 규범과 치국 윤리만을 담론하며 현실 사회에 참여해 몸을 닦고 백성을 구제하는 일만 중시했으나, 천지의 본원과 세상 운명의 뿌리까지 소급해 올라가지는 못했다. 술수학자들은 오직 괘상(卦象)의 길흉과 자잘한 수리(數理)를 짜맞추는 데만 몰두하며 자신에게 닥칠 화복과 눈앞의 조짐을 중시했으나, 장원(長遠)한 시야와 대국적인 안목이 없었다. 역사가들은 오직 왕조의 교체와 군신(君臣)의 득실, 흥망의 자취를 기록하여 시대 변천의 피상적인 면만을 서술했을 뿐, 그 이면에 숨은 심층적인 법칙을 탐구하지 못했다.

천하의 학술이 이처럼 쪼개져 천도(天道)는 아득한 허무로 돌아가고 인간의 일은 세속으로 귀결되니, 하늘과 인간이 서로 분리되고 고금이 단절되어 하나의 이치로 천지의 변화와 인간 세상의 변혁을 일관되게 관통하는 자가 없었다. 소옹은 이를 깊이 탄식하여 마침내 거대한 원력(願力)을 세우고, 평생 배운 바를 총 정리하여 만세의 운명을 추론함으로써 앞선 이들이 남긴 학술의 공백을 메우기로 결정했다.

이로부터 소옹은 찾아오는 손님을 사절하고 저술에 침잠하며, 수년간 문을 닫고 깊이 연구하는 공부를 시작했다. 그는 주역(周易)을 근본으로 삼고 수리를 준칙으로 삼아, 천지 음양과 움직임과 고요함의 성쇠, 그리고 차고 기울어지는 순환 법칙을 추출해 내었다. 이어 원고(遠古) 시기의 요순(堯舜)으로부터 지나간 왕조들, 그리고 한나라와 당나라를 거쳐 북송(北宋)에 이르는 천년의 역사적 사실과 왕조의 흥망, 인간 세상의 변천을 모조리 이 체계 속에 포괄시켰다. 후세의 주관적인 억측과 억지로 끌어다 붙이는 오류를 배척하고, 천도로써 인간의 일을 정하고 수리로써 세상의 변화를 추론한다는 원칙을 견지하여, 허무하고 현묘한 말을 구하지 않고 오직 이치로써 안정을 찾고 숫자로써 증명하며 역사로써 검증할 수 있기를 구했다.

세상의 변화를 추론하는 도리는 광대하면서도 정밀했다. 소옹은 한 시대와 한 왕조에 갇힌 협소한 시각을 뛰어넘어 무궁한 천지의 거시적 차원에 입각하여, 세로

왕호응(王虎應) 기인 고사(2026년6월23일 웨이보 공개)

로는 천년 세월의 시간 질서를 계통화하고 가로로는 천지의 기운과 세상의 흥망을 대조했다. 그는 역대 왕조의 흥성과 쇠망, 세상의 태평함과 어지러움의 세밀한 다름을 탐구하여 음양 진퇴의 기수(氣數) 주기 법칙을 비교 분석했고, 마침내 역사 속에서 태평성대와 난세가 순환 반복되는 이면의 심층 논리를 통찰해 내었다.

인간 세상의 흥망은 우연이 아니며 왕조의 교체는 사람의 힘으로 독단하는 것이 아니니, 천지 기운의 성쇠와 사계절 수리의 순환 왕복은 인류 사회의 치란, 민심의 향배, 국가와 가문의 흥쇠와 털끝만큼도 틀림없이 부합한다는 것이었다. 천도는 세상 운명의 본원이 되고, 수리는 변천의 규율이 되며, 인간의 일은 체현되는 결과가 되니, 이 세 가지는 긴밀히 맞물려 운행하며 왕복 순환하여 영원한 시간 동안 예외가 없었다.

지나간 날에 세상 사람들이 역사를 볼 때는 오직 결과만 알고 그 원인은 알지 못하여, 태평한 세상을 보면 군주가 현명했기 때문이라 여기고 어지러운 세상을 보면 군주가 어리석었기 때문이라 여겨, 오직 사람의 득실만을 보았을 뿐 천지의 대세는 살피지 못했다. 소옹은 수년간 깊이 몰두하여 연구한 끝에 역사의 피상을 꿰뚫고 영원한 진상을 통찰했다. 인간 세상의 흥망은 현상이고 천지의 변화는 본질이며, 모든 흥쇠의 순환과 왕조의 교체는 모두 천도와 수리가 구체적으로 베풀어지고 감응한 결과라는 점이였다.

태평한 세상은 반드시 밝고 바른 양의 기운이 충만하고 인심이 순박하며 시절의 차례가 순탄한 때이고, 어지러운 세상은 반드시 어둡고 탁한 음의 기운이 누적되고 인심이 거칠며 시절의 차례가 균형을 잃은 때이니, 번창함과 쇠퇴함에는 정해진 숫자가 있고 흥하고 망함에는 법도가 있어 영원한 윤회가 한 치의 흐름도 어긋남이 없었다.

체계의 엄밀함과 추론의 정밀함을 기하기 위해 소옹은 글자 하나하나를 미루어 생각하고 구절마다 다듬으며 해마다 교정했다. 역사 기록의 의문점은 반드시 수리로 대조하여 검증했고, 수리의 부적합함은 반드시 역사적 사실과 결합하여 수정했다. 앞선 이들의 해묵은 학설을 맹종하지 않고 한 사람의 편견에 치우치지 않으며, 천지를 증거로 삼고 지나온 역사를 거울로 삼아 층층이 정리하고 정밀하게 쌓아 올렸다.

그리하여 도처에 산재해 있던 역사적 사건과 파편화된 인간 세상의 변천을 바르게 정돈하여 하나의 완전하고 엄밀하며 관통된 천인(天人) 체계로 조직해 내었다. 천지의 본원으로부터 세상의 만상(萬象)에 이르기까지, 사계절의 순환으로부터 영원한 흥망에 이르기까지, 미세한 수리로부터 왕조의 운명에 이르기까지 고리가 서로 맞물리고 맥락이 명확하여, 하늘과 인간이 서로 단절되어 있던 천년의 장벽을 철저히 타파했다.

수년에 걸친 고심 끝에 학문에 깊이 몰두하고 밤낮으로 연구한 끝에, 소옹은 마침내 만세의 거작인 《황극경세(皇極經世)》의 핵심 틀을 초보적으로 구축했다. 이 책은 치우침 없는 바른 도리를 세우고 영원한 시간을 관통하여 천문, 수리, 주역, 역사, 인간의 일을 하나로 융합했으며, 전대미문의 숫자로서 세상을 추론하고 이치로써 역사를 꿰뚫으며 하늘로써 인간을 증명하는 새로운 학문 체계를 창시했다. 후세가 역사를 해독하고 흥망을 통찰하는 핵심 근거를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정통 역학을 자잘한 술수의 굴레에서 철저히 벗어나게 하여, 하늘과 인간을 관통하고 세상을 다스리는 대도(大道)로 승화시켰다.

영원할 것 같던 인간 세상의 일은 마침내 풀렸고 천지의 변화는 마침내 귀결점을 찾았다. 중년의 소옹은 일신의 박학함과 일평생의 깊은 연구로 하늘과 인간의

왕호응(王虎應) 기인 고사(2026년6월23일 웨이보 공개)

오묘함을 간파하고 고금의 세상 운명을 정립하여, 후세의 이학(理學)·역학·사학에 새로운 경지를 개척했다. 또한 평생토록 자신의 학설과 사상을 바르게 정립하여, 먼 미래까지 모범이 되는 거장의 뿌리를 주조(鑄造)했다.

第十三章 推演皇极，究天人际定世运

岁月沉潜，学养终成。邵雍历经半生求索，少年博览百家、青年遍历山河、中年拜师悟道、市井观心、名士砥砺、授徒传学，已然融会先天易学正宗、河洛数理本源、历代兴衰义理。人到中年，其心性澄澈无滞、学问圆融无碍，彻底跳出局部格物、单一个体的悟道局限，眼界从方寸身心、山河市井，拓展至上古以来万古时空的天地运化、人世治乱。彼时的他，不再困于一书一理、一事一物，已然具备贯通天人、俯瞰古今的宗师格局。

纵观当世学术，儒者专言人事纲常、治国伦理，重入世修身、经世济民，却难溯天地本源、世运根由；术家专攻卦象吉凶、细碎占断，重个体祸福、局部征兆，却无万古视野、全局格局；史家只录王朝更迭、君臣得失、治乱事迹，记载世代变迁表象，却从未深究兴衰背后的底层规律。世间学问割裂两极，天道归玄虚，人事归世俗，天人相隔、古今断裂，无人能以一贯之理，贯通天地运化与人间世变。邵雍有感于此，遂立宏愿，整合毕生所学，推演万古世运，补齐千古学术之缺憾。

自此，邵雍敛尽交游、沉心著述，开启数年闭门推演之功。他以正宗先天易学为根本，以河洛数理为准则，萃取天地阴阳、动静消长、盈亏往复的核心机理，再将从上古尧舜、三代汉唐，直至五代、北宋的千年史料、王朝治乱、世事变迁尽数纳入其中。摒弃世俗主观臆断、后人附会谬论，坚持以天道定人事、以数理推世变，不求虚言玄妙，只求有理可依、有数可证、有史可验。

推演之道，浩大且精微。邵雍跳出一朝一代的狭隘视角，站在万古天地的宏大维度，纵向梳理千年岁月的时序更迭，横向对照天地气运与人间治世的关联。他细究每一次王朝兴盛、每一回世道动乱，比对阴阳进退、气运流转的周期规律，终于勘破千古治乱的底层逻辑：人间治乱非偶然，王朝兴衰非人事独定，天地气运的消长轮转、四时数理的循环往复，与世道民心、家国兴衰一一对应、深度契合。天道为世运之根，数理为变迁之度，人事为显现之果，三者同步共振、往复循环，万古从未破例。

往日世人观史，只知其然、不知其所以然，见盛世则以为贤君治世，见乱世则以为庸主误国，只观人为得失，不察天道大势。邵雍经数年潜心推演，彻底拨开历史表象，洞悉万古真相：人世兴衰是表象，天地运化是本源，所有的治乱循环、王朝更迭，皆是天道数理的具象显现。盛世必是阳和气运充盈、人心淳正、时序平顺，乱世必是阴浊气运累积、人心浮躁、时序失衡，盈亏有数、盛衰有度，万古轮回、井然有序。

为求体系严谨、推演精准，邵雍字字推敲、岁岁校正。凡史载存疑之处，必对照数理核验；凡数理相悖之论，必结合史实修正。不盲从古籍旧说，不偏执一己之见，以天地为证、以万古为鉴，层层梳理、步步搭建，将零散的历史事件、碎片化的世事变迁，规整为一套完整、严谨、贯通的天人体系。从天地本源到人间百态，从四时轮转至万古兴衰，从细微数理到王朝世运，环环相扣、脉络清晰，彻底打通天人相隔的千年壁垒。

历经数载孤心沉潜、日夜推演，邵雍终于初步搭建起旷世巨著《皇极经世》的核心框架。此书以“皇极”立中正之道，以“经世”贯万古之时，融天文、数理、易学、史学、

‘증산복역’ 역자 ‘이두 김선호’ 필독 권장 자료

왕호응(王虎應) 기인 고사(2026년6월23일 웨이보 공개)

人道于一体，开创了前所未有的以数推世、以理通史、以天证人的全新治学体系。不只为后世解读历史、洞察兴衰提供了核心依据，更让先天易学彻底摆脱术数小道的桎梏，升华为贯通天人、经纬万古的经世大道。

万古世事终有解，天地运化终有归。中年邵雍，以一己博学、一世沉潜，勘破天人奥秘、定格古今世运，为后世理学、易学、史学开辟了全新境界，也为自己一生立言立说、垂范千古，铸就了最核心、最不朽的宗师根基。



출 처: <https://weibo.com/u/6819693315>

번 역: Gemini /응(인스타: sangjun2495) (응선생 휴대폰: 010-5318-6999)

자 료: 고미승, 김정은, 김종윤, 안은선 등 솔루션: 오종현

태원(太原) 인물(人物) 전기(傳奇)

염약거전(閻若璩傳)

염약거(閻若璩)는 자(字)가 백시(百詩)이고 본관(本貫)은 태원(太原) 양곡(陽曲)이며, 청대(清代) 고증학(考證學)의 종사(宗師)이자 당대 최고의 유학자(儒學者)이다. 그는 대대로 학문을 하는 명문가 출신으로 가학(家學)의 뿌리가 깊고 두터웠으며, 자라면서 몸이 약하고 병이 많았으나 타고난 자질이 총명하고 민첩하여 배움을 즐겨 게으르지 않았다. 어린 시절 책을 읽으면 한 번 눈에 스친 것은 잊지 않았고, 고증에 깊이 몰두하여 경서와 역사서를 지극히 좋아했다. 세속(世俗)의 부귀와 화려함을 물리치고 종일(終日) 전적(典籍)에 파묻혀 여섯 경전의 깊은 뜻을 탐구하고, 고금의 역사책에 담긴 진위를 분별하였다. 성품이 엄격하고 신중했으며, 학문을 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실증(實證)을 구하고 알맹이 없는 의리(義理)를 공론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 산서성 지역 고증학의 선구자가 되었다.

명나라와 청나라의 교체기에 학계의 문풍(文風)이 공허하고 소홀하여 문인들이 대부분 성리학을 이치로만 공론하고 고증을 소홀히 하니, 고서적에 잘못된 글자가 뒤섞이고 위서(僞書)가 번잡하게 늘어서서 천년 동안 이어진 경학(經學)에 오류가 많았다. 염약거는 학계의 쌓인 폐단을 통감(痛感)하여 평생 동안 고증과 훈고(訓詁)에 깊이 몰두하였고, 천하의 장서를 두루 열람하며 책의 원류를 고찰하고 경문의 진위를 분별하였다. 수십 년의 세월을 바쳐 《상서고문소증(尙書古文疏證)》을 편찬(編纂)하였는데, 경전과 옛 기록을 인용하고 층층이 고증하여 상세하고 확실한 논거로 《고문상서(古文尙書)》가 위조되었음을 증명하고 천년 경학의 오류를 바로잡아 역대의 오래된 학설을 뒤엎었다. 고증이 엄격하고 논설이 공정하여 천하의 학계를 진동시켰고 청나라 경학의 체계를 새로이 구축하여, 청나라 전성기 건가학파(乾嘉學派) 고증학의 기틀을 다졌다.

염약거는 일생 동안 공명(功名)을 담박(淡泊)하게 여겨 수차례 과거 시험에 응시했으나 낙방하자 마침내 과거에 뜻을 끊고 학문에 전념하여, 평생토록 옛 책을 교감하고 경학을 바로잡으며 성학(聖學)을 전승(傳承)하는 것을 뜻으로 삼았다. 그의 학문은 특정한 문파에 구애되지 않고 옛 학설에 얽매이지 않았으며, 오직 역사적 사실과 전적을 근거로 삼아 참됨을 구하고 실리에 힘쓰므로써 명나라 말기의 공허한 학풍(學風)을 일소(一掃)하고 청나라의 실천적인 학문 신풍(新風)을 열었다. 태원 사족의 후손으로서 산서성 지역의 문풍을 숭상하고 실리에 힘쓰는 유풍(遺風)을 계승하여, 평생 학문의 공력으로써 중원 경학의 문맥을 진흥시키고 천년 전적의 오류를 바로잡았다. 이에 덕을 세고 훌륭한 말을 남겨 후세에 혜택이 미쳤으니, 청나라 북방 제일의 경학 대유(大儒)이자 백 세대 뒤까지 영원한 사표(師表)가 되었다.

閻若璩傳

閻若璩，字百詩，祖籍太原陽曲，清代朴學宗師、一代鴻儒也。若璩出身書香士族，家學淵厚，自幼體弱多病，却天資聰敏，嗜學不倦。少時讀書過目不忘，潛心考據，篤好經史，摒棄世俗浮華，終日埋首典籍，深究六經奧義，辨析古今史籍真偽。其生性嚴謹審慎，治學務求實證，不喜空談義理，開清代三晉朴學考據之先河。

‘증산복역’ 역자 ‘이두 김선호’ 필독 권장 자료
왕호응(王虎應) 민간 고사(2026년6월23일 웨이보 공개)

明清之际，学界文风空疏，文人多空谈理学，疏于考据，古籍讹误错乱、伪书杂陈，千年经学多有谬误。若璩痛感学界积弊，毕生潜心考据训诂，遍览天下藏书，考究典籍源流，辨析经文真伪。耗时数十年编撰《尚书古文疏证》，引经据典、层层考证，以详实论据证《古文尚书》之伪，辨析千年经学谬误，颠覆历代旧说，考据严谨、立论公允，震动天下学界，重塑清代经学体系，为乾嘉学派考据之学奠基之人。若璩一生淡泊功名，数次应试不第，遂绝意科举，专心治学，终身以考订古籍、匡正经学、传承圣学为志。其治学不囿于门户、不拘泥古说，唯以史实典籍为据，求真务实，一扫明末空疏学风，后清代务实治学之新风。身为太原土族之后，承三晋崇文务实之遗风，以毕生治学之功，振中原经学文脉，纠千年典籍之谬，立德立言，泽被后世，为清代北方第一经学大儒，百世师表。



출 처: <https://weibo.com/u/6819693315>
번 역: Gemini / 응(인스타: sangjun2495) (응선생 휴대폰: 010-5318-6999)
자 료: 고미승, 김정은, 김종윤, 안은선 등 솔루션: 오종현

왕호응(王虎應) 도서 소개(2026년6월23일 웨이보 공개)

《신의천진(神醫天真)》 6

량중자(良中子)는 곧 안도 쇼에키(安藤昌益)로, 일본 에도 중기의 지명도 있는 민간 의사와 사상가이다. 평생 의술과 본초(本草) 학문을 깊이 연구하는 동시에 사방을 유람하며 독창적인 학술 이념을 형성했다. 《신의천진》은 그의 핵심 의학 저작으로, 책 전체가 천진원기(天真元氣)를 근본적인 입론으로 삼아 인체와 천지만물이 모두 일원원기(一元元氣)로 화생한다고 보았으며, 음양(陰陽)이 서로 소통하고 순환하며 상생한다는 전체적인 관점을 견지하여 전통적인 완고한 음양오행(五行) 인식을 타파했다.

해당 서책은 특색 있는 진료 체계를 형성했는데, 얼굴 부위의 망진(望診)을 중시하여 얼굴 부위와 오관을 장부(臟腑)에 대응시켜 병소와 병세를 판단했다. 시치(施治) 이념에 있어서는 자연 법칙에 순응하는 것을 주장하여, 온몸의 원기를 조화롭게 하고 신체 균형을 회복하는 것을 핵심으로 삼았으며 독한 약으로 강하게 공격하는 것을 추종하지 않았다.

이 저작은 의학 이론과 자연 철학을 깊이 결합하여, 전통 의학 이론의 정수를 흡수하면서도 자신만의 독창적인 사색을 융합했으니, 일본 근세 민간 의학 중에서 풍격이 선명하고 사상이 심오한 고전이며, 당시 동아시아 민간 의술과 사상 문화를 연구하는 데에도 귀중한 참고를 제공한다. 연재의 여섯 번째.

良中子即安藤昌益，是日本江戸中期知名民间医者与思想家，一生钻研医术、本草之学，同时游历四方，形成了独树一帜的学术理念。《神医天真》是其核心医学著作，全书以“天真元气”

为根本立论，认为人体与天地万物皆由一元元气化生，秉持阴阳互性、循环相生的整体观念，打破传统僵化的阴阳五行认知。

该书形成了特色诊疗体系，重视面部望诊，以面部部位、五官对应脏腑来判断病灶与病情。在施治理念上，主张顺应自然规律，以调和周身元气、恢复机体平衡为核心，不推崇猛药强攻。

这部作品将医学理论与自然哲学深度结合，既吸纳传统医理精华，又融入自身独到思考，是日本近世民间医学中风格鲜明、思想深刻的典籍，也为研究当时东亚民间医术与思想文化提供了珍贵参考。连载之六。



출 처: <https://weibo.com/u/6819693315>

번 역: Gemini / 응(인스타: sangjun2495) (응선생 휴대폰: 010-5318-6999)

자 료: 고미승, 김정은, 김종윤, 안은선 등 솔루션: 오종현

'증산복역' 역자 '이두 김선호' 필독 권장 자료
왕호응(王虎應) 일일 감상(2026년6월23일 웨이보 공개)

자료 없음



**그림 보고
성어(成語) 맞히기**

당신의 성어에 대한
이해력을 시험해 보세요!
이 그림들이 어떤 성어를
나타내는지 맞춰보세요.
사고력을 넓히고
훈련하세요!

출 처: <https://weibo.com/u/6819693315>
번 역: Gemini /응(인스타: sangjun2495) (응선생 휴대폰: 010-5318-6999)
자 료: 고미승, 김정은, 김종윤, 안은선 등 솔루션: 오종현